M43-retail

LearningSpoonsR

2019-02-10

- 0. 시작하기
- 1. 배송 기간 분석 (Ship Date를 기반으로 배송이 가장 오래걸리는 상품은 무엇인가?)
- 2.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상품은 무엇인가?

0. 시작하기

# 들어가기 앞서…

- 1. 가장 처음 할 일
  - ▶ 가장 처음에 해야할 작업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
  - ▶ 파일로 받은 경우에는 엑셀이나 메모장으로 확인
- 2. 전처리
  - ▶ Tidy data,frame은 각 column이 변수, 각 row가 관찰값에 대응됩니다.
  - ▶ 전처리는 데이터가 tidy하지 않은 경우에 tidy하게 바꾸는 작업을 의미합니다.
- 3. 전처리 과정의 특징
  - ▶ raw 데이터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지저분할수록…
  - 세밀한 관찰력과 때로는 창의력을 요하기도 합니다.
  - ▶ 노동집약적이기도 하지만,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.
  - 얻게되는 처리 경험이 분석가로서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.

# Online 판매 업체의 개별 판매 기록 데이터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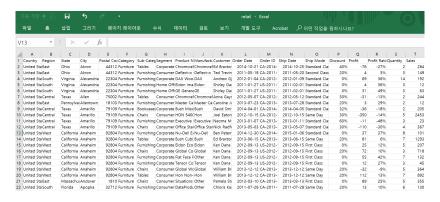


Figure 1: retail.xlsx

```
# install.packages("readxl")
library(readxl)
dataset <- read_excel("retail.xlsx")</pre>
```

```
str(dataset)
```

## \$ Sales

```
## Classes 'tbl df', 'tbl' and 'data.frame': 9994 obs. of 20 variables:
## $ Country
                : chr
                        "United States" "United States" "United States"
## $ Region
                  : chr
                        "East" "East" "South" "South" ...
## $ State
                 : chr
                        "Ohio" "Ohio" "Virginia" "Virginia" ...
## $ City
                  : chr
                        "Akron" "Akron" "Alexandria" "Alexandria" ...
   $ Postal Code : num
                        44312 44312 22304 22304 22304 ...
##
## $ Category : chr
                        "Furniture" "Furniture" "Furniture" ...
## $ Sub-Category : chr
                        "Tables" "Furnishings" "Furnishings" "Furnishings" ...
   $ Segment
                        "Corporate" "Consumer" "Corporate" "Home Office" ...
##
                 : chr
## $ Product Name : chr
                        "Chromcraft Rectangular Conference Tables" "Deflect-o Glass Clear
## $ Manufacturer : chr
                        "Chromcraft" "Deflect-o" "DAX" "Eldon" ...
## $ Customer Name: chr "Ed Braxton" "Ted Trevino" "Andrew Gjertsen" "Shirley Daniels" .
## $ Order Date : POSIXct, format: "2014-10-21" "2011-05-18" ...
## $ Order ID
                : chr "CA-2014-147277" "CA-2011-164224" "CA-2012-104241" "US-2011-1555
   $ Ship Date
##
                 : POSIXct, format: "2014-10-25" "2011-05-20" ...
   $ Ship Mode
##
                  : chr
                        "Standard Class" "Second Class" "Standard Class" "Standard Class
## $ Discount
                 : num 0.4 0.2 0 0 0 0.3 0.2 0.32 0.3 0.6 ...
## $ Profit
                  : num -76 4 69 4 31 -31 3 -36 -350 -11 ...
## $ Profit Ratio : num -0.27 0.03 0.36 0.49 -0.13 0.29 -0.18 -0.14 -0.48 ...
   $ Quantity
                  : num 2 3 14 3 3 2 2 2 5 3 ...
##
```

: num 284 149 192 12 63 ...

#### colnames(dataset)

```
[1] "Country"
                        "Region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"Citv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"State"
## [5] "Postal Code"
                        "Category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"Sub-Category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"Segment"
    [9] "Product Name"
                        "Manufacturer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"Customer Name" "Order Date"
## [13] "Order ID"
                        "Ship Date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"Ship Mode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"Discount"
                        "Profit Ratio" "Quantity"
## [17] "Profit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"Sales"
```

#### ▶ 변수 분류

- 1. 지역 colnames(dataset)[1:5]: Country, Region, State, City, Postal Code
- 2. 상품 분류 colnames(dataset)[6:8]: Category, Sub-Category, Segment
  - 3. 상품 colnames(dataset) [9:10]: Product Name, Manufacturer
- 4. 고객 colnames(dataset)[11]: Customer Name
- 5. 배송 colnames(dataset) [12:15]: Order Date, Order ID, Ship Date, Ship Mode
- 6. 가격 colnames(dataset)[16:20]: Discount, Profit, Profit Ratio, Quantity, Sales
- ▶ 각 변수별 unique 관찰값의 갯수

#### sapply(dataset, function(x) length(unique(x)))

##	Country	Region	State	City	Postal Code
##	1	4	49	531	631
##	Category	Sub-Category	Segment	Product Name	Manufacturer
##	3	17	3	1850	183
##	Customer Name	Order Date	Order ID	Ship Date	Ship Mode
##	793	1238	5009	1334	4
##	Discount	Profit	Profit Ratio	Quantity	Sales
##	12	755	161	14	1148

## 데이터 분석의 과정

- 데이터의 관찰 -〉가설의 설정 -〉가설 검증 -〉결론 도출 -〉공유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.
  - ▶ 이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데이터를 더 확보해서 분석에 포함시키기도 하고
  - 데이터의 결함과 미비한 점을 파악하면서 데이터 관리자, 공급자와 커뮤니케이션 합니다.
  - ▶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며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합니다.
- ▶ 업체로 부터 아래와 같은 궁금증(가설)을 제시받았습니다.
- ▶ 생각해 볼 수 있는 궁금증들…
  - 1. Ship Date를 기반으로 배송이 가장 오래걸리는 상품은 무엇인가?
  - 2.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상품은 무엇인가?

1. 배송 기간 분석 (Ship Date를 기반으로 배송이 가장 오래걸리는 상품은 무엇인가?)

# Design

#### 배경

- ▶ 상품의 배송 시간
  - ▶ 주문(Order)-출고(Ship)-배송완료(Delivery)의 3개의 시점이 있음.
  - ▶ 주문과 출고사이의 시간(lead time)은 판매자의 역량
  - ▶ 출고와 배송완료 시점 사이의 시간(delivery time)은 배송업체의 역량 (delivery mode에 따라서 달라짐)

## 수정된 질문

배송 기간 분석 (Ship Date를 기반으로 배송이 가장 오래걸리는 상품은 무엇인가?)

- → 1. Lead time이 오래 걸리는 상품은 무엇인가?
- → 2. Delivery time이 오래 걸리는 상품은 무엇인가?

### 논의

- 질문자의 의도는 주문과 배송완료 사이의 시간,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…
- 처음 떠오르는 질문은 분석 의도와 목적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, 검증가능한 가설의 형태로 만들어야 함
- ▶ 의뢰업체 노력이 가능한 lead time을 분석하기로 함

## Development

- ▶ 각 Sub-Category별로 Ship Date와 Order Date의 차이를 계산해서 분석
- ▶ 평균과 분산을 분석

# More Development

- Average
  - ▶ 신속도, 기대 수치, 예상 수치
  - ▶ 전반적 speed, 운영의 효율성
- Variation
  - ▶ 표준편차(Standard deviation), 신뢰도 (reliability)
  - ▶ 운영의 항상성 (consistency)
- ► Long-tail
  - ▶ Extreme events, 지연 및 사고
  - ▶ 소비자의 큰 불만, 고장, 인력 공백, 기상 이변
  - ▶ 이상치에 대한 개별 분석이 필요
- ▶ 그래프로 접근

## Tasks Specification

- 1. TASK11
  - ▶ leadTime이라는 변수를 생성한다.
  - ▶ 각각의 Sub-Category에 대해서 leadTime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다.
- 2. TASK12: 각각의 Sub-Category에 대해서 box-plot을 그린다.
- 3. TASK13: leadTime이 가장 긴 20개의 관찰값을 출력한다.

# TASK11: leadTime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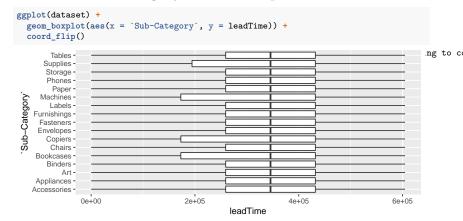
- ▶ avgLT와 sdLT를 구했지만, 단위가 초(second)로 되어있다.
- ► Trouble shooting
  - 1. class(task11\$avgLT): difftime
  - 2. google "convert difftime second to days R"을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

```
task11$avgLT <-
  task11$avgLT %>%
  as.numeric(units = "days") %>%
  round(2)
task11$sdLT <-
  task11$sdLT %>%
  as.numeric(units = "days") %>%
  round(2)
```

```
print(task11)
## # A tibble: 17 x 3
##
     `Sub-Category` avgLT sdLT
##
     <chr>
                  <dbl> <dbl>
## 1 Art
                  4.05 1.75
##
   2 Binders
                  4.02 1.74
   3 Supplies
                  4.02 1.87
##
                  4.02 1.73
##
   4 Envelopes
## 5 Labels
                  4.01 1.75
## 6 Phones
                        1.71
                   4
## 7 Appliances
                  3.99 1.69
## 8 Fasteners
                  3.98 1.76
## 9 Storage
                  3.98 1.76
## 10 Furnishings
                  3.96 1.74
## 11 Chairs
                  3.9 1.79
                  3.9 1.8
## 12 Tables
## 13 Accessories
                  3.89 1.72
                  3.89 1.75
## 14 Paper
## 15 Bookcases
                  3.81 1.68
## 16 Machines
                  3.75 1.99
## 17 Copiers
                  3.62 1.88
```

- ▶ 평균
  - ▶ 평균 leadTime이 4일 정도이다.
  - ▶ 기성품 판매 업체라면 너무 느리다. (미국 기준에서는 ok?)
  - ▶ Sub-Category별로 차이는 크지 않다.
- ▶ 표준편차
  - ▶ 약 70%의 경우에 leadTime의 4 -1.7 ~ 4 +1.7 이다.
  - ▶ Sub-Category별로 차이는 크지 않다.
- ▶ Task12의 박스플랏으로 분포를 확인해 본다.

# TASK12: 각각의 Sub-Category에 대해서 box-plot을 그린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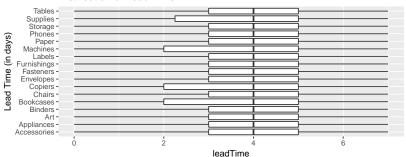
▶ x축 leadTime의 수치가 seconds 단위로 나온다.

## ► Trouble shooting

- 1. dataset\$leadTime변수 자체가 seconds 단위의 difftime으로 되어있다.
- 2. 앞에서와 마찬 가지로 dataset\$leadTime <- dataset\$leadTime %>% as.numeric(units = "days")을 실행해준다.
- 3. title과 x축 label도 넣어준다. 예쁘게 ^^

```
dataset$leadTime <- dataset$leadTime ">" as.numeric(units = "days")
ggplot(dataset) +
   geom_boxplot(aes(x = `Sub-Category`, y = leadTime)) +
   coord_flip() +
   labs(title = "Distribution of Lead Time", x = "Lead Time (in days)")
```

#### Distribution of Lead Time



#### 결론

- ▶ Overall
  - ▶ 모든 상품에 대해서 중간값이 4일이다.
  - ▶ 대부분 3일~5일간에 출고가 완료된다.
  - ▶ Furnishing, Machines, Chairs, Bookcases와 같이 크기가 클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leadTime이 특별히 길다고 말할 수 없다.
- On the tail
  - 1. 전체 관찰값의 갯수는 nrow(dataset): 9994
  - 2. 최장 leadTime은 max(dataset\$leadTime): 7
  - 3. leadTime이 7인 경우는 총 sum(dataset\$leadTime)): 621건에 해당하며
  - 4. 이를 비율로 표현하면 (3번 값을 1번 값으로 나누면) sum(dataset\$leadTime==max(dataset\$leadTime))/nrow(dataset)\*100: 6.2137282% 이다.
  - 즉, nrow(dataset)건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leadTime을 7일 내로 100% 처리했으며, 6일내로 94% 처리했다.
  - 6. 전체 만 건중에서 7일인 경우가 621건인데, 8일 이상은 0건이다? -> 조작의 가능성…

# TASK13: leadTime이 가장 긴 20개의 관찰값을 출력한다.

#### 목적

▶ leadTime의 분포가 long-tail의 모습을 보인다면, 즉 몇몇 제품의 leadTime이 이상하게 높았다면, 이들 case를 살펴본다.

#### Review on TASK12

- ▶ 그러나 TASK12의 결과로는 621개의 배송이 최대 leadTime
- ▶ 특별한 이상치가 없고, 원래 의도한 TASK13을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.

# new TASK13: leadTime이 7일인 경우는 어떤 상품들이 많이 있는지 알아보자.

- ▶ leadTime이 7인 주문을 Category와 Sub-Category로 나누어서 갯수를 관찰한다.
- ▶ 아니다! 갯수가 아니라 해당 Category와 Sub-Category의 총 주문 갯수에 대비한 비율로 보아야 한다.
- ▶ 예를 들어 **leadTime**이 7일인 Furniture 주문의 갯수를 전체 Furniture 주문 갯수로 나누어야 한다.

# By Category

## 3 Technology

```
# For each Category
task13a <- dataset %>%
  group_by(`Category`) %>%
  summarise(maxLeadTimePercent =
              100*sum(leadTime==7)/length(leadTime)) %>%
  arrange(desc(maxLeadTimePercent))
task13a
## # A tibble: 3 x 2
                     maxLeadTimePercent
##
    Category
##
    <chr>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db1>
## 1 Office Supplies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.37
## 2 Furniture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.08
```

5.85

## By Sub-Category

```
# For each Sub-Category
task13b <- dataset %>%
  group by(`Sub-Category`) %>%
  summarise(maxLeadTimePercent = 100*sum(leadTime==7)/length(leadTime)) %>%
 arrange(desc(maxLeadTimePercent))
task13b %>% head(8) %>% t() # first 8 obs & transpose
                           [,2] [,3]
##
                    [,1]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.4]
## Sub-Category
                  "Supplies" "Machines" "Fasteners" "Art"
## maxLeadTimePercent "10.526316" " 8.695652" " 7.834101" " 7.537688"
##
                    [.5] [.6] [.7] [.8]
## Sub-Category "Binders" "Tables" "Chairs" "Appliances"
## maxLeadTimePercent " 7.353907" " 6.896552" " 6.482982" " 6.008584"
```

- ▶ Supplies 주문들은 10%이상의 leadTime이 7일에 해당한다.
- ▶ Supplies 주문들은 배송을 시행하기 까지 왜 오래 걸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.

2.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상품은 무엇인가?

# Design

## 배경

▶ 마진이 궁금한 이유는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분석을 원하는 것입니다.

## 수정된 질문

- ▶ <del>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상품은 무엇인가?</del>
- → 개별 상품군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?
- ▶ → 개별 상품군의 이익률(Profit-Revenue-Ratio)는 얼마인가?

#### 추가 질문

- ▶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?
- ▶ 분기 단위로 나누어 분석의 깊이를 더하자.

# Tasks Specific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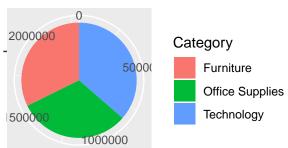
- 1. TASK21
- ▶ 각각의 Category와 Sub-Category에 대해서 Sales와 Profit을 각각 합산
- 2. TASK22
- ▶ Profit을 Sales로 나누어서 profitRatio을 구한다.
- 3. TASK23
- ▶ 분기를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고 위의 분석을 반복한다.

# TASK21: 상품군별 Sales와 Profit 합산

```
task21 <- dataset %>%
 group by (Category) %>%
 summarise(Sales = sum(Sales), Profit = sum(Profit)) %>%
 mutate(profitRatio = round(Profit/Sales,2)) %>%
 arrange(desc(profitRatio))
print(task21)
## # A tibble: 3 x 4
##
    Category
                    Sales Profit profitRatio
##
    <chr>>
                   <dbl> <dbl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db1>
## 1 Office Supplies 719127 12247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17
## 2 Technology
                   836221 14542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17
## 3 Furniture 742006 1844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02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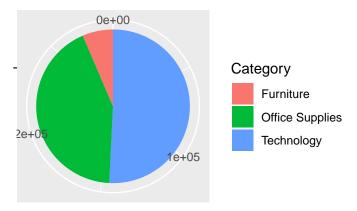
```
# Reference: `M24 piechart`
ggplot(task21, aes(x = "", y = Sales, fill = factor(Category))) +
geom_bar(width = 1, stat = "identity") +
theme(axis.line = element_blank(),
    plot.title = element_text(hjust = 0.5)) +
labs(fill = "Category", x = NULL, y = NULL, title = "Sales Contribution") +
coord_polar(theta = "y", start = 0)
```

# Sales Contribution



```
ggplot(task21, aes(x = "", y = Profit, fill = factor(Category))) +
   geom_bar(width = 1, stat = "identity") +
   theme(axis.line = element_blank(),
        plot.title = element_text(hjust = 0.5)) +
   labs(fill = "Category", x = NULL, y = NULL, title = "Profits Contribution") +
   coord_polar(theta = "y", start = 0)
```

# **Profits Contribution**



#### 해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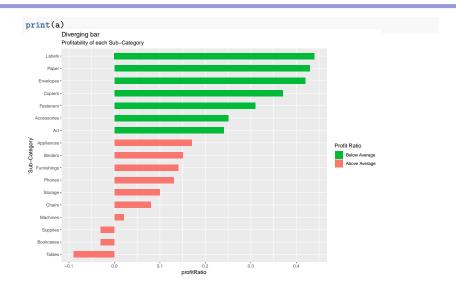
- ► Furniture
  - ▶ 74만불의 매출, 2만불에 못 미치는 이익
  - 특성 1. 부피와 무게가 커서 다루는데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
    - 1. 구피와 무게가 커서 나무는데에 인덕과 시간이 2. 운반, 재고 저장, 재고 감가상각 비용이 큼
    - 3. 반품이 생기면 완전 골치아픈 ㅠㅠ
  - ▶ 그런데 이익률이 2%입니다. ㅠㅠ
- Questions on Furniture
  - 1. Sub-Category 전부가 그럴까? 대형 가구와 중소형 가구의 이익률이 다른가?
  - 2. 예전부터 이랬나? 최근의 IKEA의 습격을 당해서 마진율이 내려간 것인가?
  - 3. 계속해야 하는가? 어떤 대안으로 돌파가 가능한가?
  - 4. (2의 분석의 경우에는 IKEA의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IKEA 매장의 근교 지역과 아닌 지역을 구분해서 비교하는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.)

# TASK22: 상품군별 profitRatio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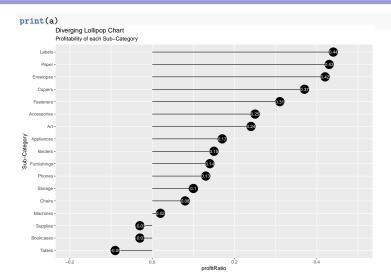
```
task22 <- dataset %>%
  group by(`Sub-Category`) %>%
  summarise(Sales = sum(Sales), Profit = sum(Profit)) %>%
 mutate(profitRatio = round(Profit/Sales,2)) %>%
  arrange(desc(profitRatio))
task22
## # A tibble: 17 x 4
##
     `Sub-Category` Sales Profit profitRatio
##
     <chr>>
                     <dbl> <dbl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db1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58
##
   1 Labels
                     12507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44
   2 Paper
                     78475 3405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43
##
   3 Envelopes
                     16477 6956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42
##
   4 Copiers
                    149530 55618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37
## 5 Fasteners
                      302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31
## 6 Accessories
                    167401 4193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25
## 7 Art.
                     27137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3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24
##
   8 Appliances
                    107538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3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17
##
   9 Binders
                    203428
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20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15
## 10 Furnishings
                    91705 1307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14
## 11 Phones
                    330047
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49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13
## 12 Storage
                    22386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28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1
## 13 Chairs
                    328454
                           26586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08
## 14 Machines
                    189243 3387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02
                    114879 -3479
## 15 Bookcases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0.03
## 16 Supplies
                    46679 -1187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0.03
## 17 Tables
                    206968 -1773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0.09
```

## Diverging bar로도 표현이 가능

```
# Reference: `M24. Deviation`
task22$profitHL <-
  ifelse(task22$profitRatio < mean(task22$profitRatio),</pre>
         "below average", "above average")
task22 <- task22 %>% arrange(profitRatio)
# Convert to factor to preserve sorted order in plot.
task22$`Sub-Category` <-
  factor(task22$`Sub-Category`, levels = task22$`Sub-Category`)
a <- ggplot(task22.
            aes(x = `Sub-Category`, y = profitRatio, label = profitRatio)) +
  geom_bar(stat = 'identity', aes(fill = profitHL), width = .5) +
  scale fill manual(
    name = "Profit Ratio",
    labels = c("Below Average", "Above Average"),
    values = c("below average" = "#f8766d".
               "above average" = "#00ba38")) +
  labs(title = "Diverging bar".
       subtitle = "Profitability of each Sub-Category") +
  coord flip()
```



## 좀 더 modern look을 아래와 같은 "Diverging Lollipip Chart"



#### 해석

#### ▶ Overall

- ▶ 같은 table을 이익순으로 정렬하는 것이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▶ 이익률이 높은 Sub-Category들의 경우에는 이익률은 높지만 실제 이익의 총량은 얼마 안되는 품목들도 많이 있습니다.
- ▶ Labels, Envelopes, Fastener, Art의 경우에는 이익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.

#### Furniture

- ▶ 이익률 하위 부분의 Storage, Chairs, Bookcases, Tables이 가구류에 해당합니다.
- ▶ 해당 소형 가구라인의 유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?

#### task22 %>% arrange(desc(Profit, Sales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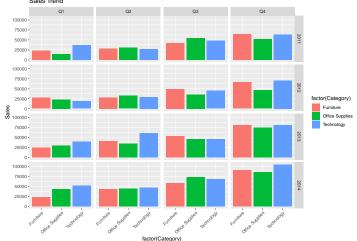
```
## # A tibble: 17 x 5
##
      `Sub-Category`
                     Sales Profit profitRatio profitHL
                            <dbl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dbl> <chr>
##
      <fct>
                     <dbl>
    1 Copiers
                    14953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618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37 above average
##
   2 Phones
                    330047 4449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13 below average
##
   3 Accessories
                    167401 4193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25 above average
##
   4 Paper
                     78475 3405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43 above average
##
   5 Binders
                    203428
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20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15 below average
##
   6 Chairs
                    32845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586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08 below average
##
   7 Storage
                    22386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28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1 below average
##
   8 Appliances
                    107538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3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17 below average
##
   9 Furnishings
                     91705 1307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14 below average
## 10 Envelopes
                     16477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56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42 above average
## 11 Art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30
                     27137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24 above average
## 12 Labels
                     12507 5558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44 above average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02 below average
## 13 Machines
                    18924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87
## 14 Fasteners
                      302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31 above average
## 15 Supplies
                     46679 -1187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0.03 below average
## 16 Bookcases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0.03 below average
                    114879 -3479
## 17 Tables
                    206968 -1773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0.09 below average
```

# TASK23: 분기를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고 위의 분석을 반복

```
변수 생성 및 집계
```

```
task23 <- dataset %>%
 mutate(year = substr(`Order Date`, 1, 4),
        quarter = ceiling(as.numeric(substr(`Order Date`, 6, 7))/3)) %>%
 select(year, quarter, Category, Sub-Category, Profit, Sales) %>%
 group by (year, quarter, Category) %>%
  summarise(Sales = sum(Sales), Profit = sum(Profit))
task23$year <- factor(task23$year)</pre>
task23$quarter <- factor(paste0("Q", task23$quarter))</pre>
head(task23)
## # A tibble: 6 x 5
## # Groups: vear, quarter [2]
##
    year quarter Category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ales Profit
##
    <fct> <fct> <chr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dbl> <dbl>
## 1 2011 Q1
                  Furniture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658 -206
## 2 2011 Q1
                  Office Supplies 14526 2225
## 3 2011 Q1
                  Technology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261 1781
## 4 2011 Q2
                  Furniture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061 801
## 5 2011 Q2
                  Office Supplies 31245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80
## 6 2011 Q2
                  Technology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3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20
```

```
ggplot(task23, aes(x = factor(Category), y = Sales, fill = factor(Category))) +
geom_bar(stat = 'identity') + # for already aggregated quantity
facet_grid(year ~ quarter) + # x: quater, y: year
theme(axis.text.x = element_text(angle = 45, hjust = 1)) + # rotate x_label
labs(title = "Sales Trend") # title
Sales Trend
```



#### 해석

#### ▶ 시계열 변동의 구성요소

- 1. 경향성 (트렌드, trend)
- 2. 계절성 (계절성, seasonality)
- 3. 그외의 잡음

## 1. 경향성

- ▶ 매출량의 트렌드는 긍정적입니다.
- ▶ 연도가 지나면서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
#### 2. 계절성

-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로 갈수록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- ▶ retail 상품이기에 계절성이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.
- ▶ 소비 경기에 민감한 비지니스입니다.

### More on 계절성

- ▶ 어떤 고정된 길이의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인 모습(cyclic pattern)을 보이는 것
- ▶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계열 데이터는 대부분 계절성이 있음.
- ▶ 예시
  - 교통 수단의 이용량의 경우: 출퇴근 시간 vs 낮시간, 1주일에 대해서 요일별, 매년 명절이 찾아옴
  - ▶ 미국 소비자의 쇼핑 패턴을 보면 대부분의 소비가 겨울에 집중
  - (In your biz)
  - ► (In your biz)
- ▶ 기업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은 "전월대비"가 아닌 "전년동월대비" 관점으로 보아야 함.

```
ggplot(task23, aes(x = factor(Category), y = Profit, fill = factor(Category))) +
  geom_bar(stat = 'identity') +
  facet_grid(year~quarter) +
  theme(axis.text.x = element_text(angle = 45, hjust = 1)) +
  labs(title = "Profit Trend")
      Profit Trend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4
  20000 -
  15000
  10000 -
   5000
  20000 -
  15000
  10000 -
   500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actor(Category)
JE 20000 -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urniture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ffice Supplies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echnology
  15000
  10000 -
   5000
  20000 -
  15000 -
  10000 -
   5000 -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actor(Category)
```

#### 해석

- Overall
  - ▶ 매출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
- ► Technology
  - ▶ 2014년 1분기에는 전년과 전전년 동분기에 비해서 Technology 제품에 대해서 큰 수익을 거둠
  - 2012년, 2013년, 2014년의 1분기에 어떤 상품들이 팔렸는지?
  - ▶ 예를 들어서 2014년 1분기에 아이폰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고 그것을 해당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하였다면, 그것이 이익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말할수 있겠네요.
- ► Furniture
  - ▶ 2014년도 4분기에는 전년과 전전년 동분기에 대비해서 순이익이 적었습니다.
  - ▶ 이유를 더 살펴보고 2015년에의 Furniture 관련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.